

# Good things\*

FREE

Market-m\* Life style magazine

2014 Summer



9 77238434006 07

ISSN 2286-4343

**Good Story** *You, me & the sea.*

06 Travel 바이런 베이, 호주  
 20 Brand 호주 바이런 베이의 토탈 리빙샵, Our corner Store

**Good Info**

26 Play 시원한 한강 바이크 라이딩  
 32 Taste 여름의 맛, 아이스크림 & 빙수  
 33 Music 함께하면 더 즐거운 음악  
 35 Movie 열대야에 만나는 힐링타임  
 36 Culture 취향따라 채우는 컬러 캘린더

**Good Place**

38 Place 복합문화공간, 무대륙

**Good News**

44 News Alg 콜라보레이션 제품



발행 엠퍼블리싱 ISSN 2288-4343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3길 5 (통인동 118-10) 대표전화 02 325 4769 팩스 02 335 4769  
 발행인 이현우 기획 이현아 편집·디자인 김희진 사진 김소영 번역 복진하 인쇄 인쇄메이드 홈페이지 www.market-m.co.kr  
 광고 및 배포처 신청 help@market-m.co.kr

Market m\*이 만든 출판사인 <엠퍼블리싱>의 Good things\*는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무료 배포되는 계간지로 전국 각 도시 중심거리의 카페, 샵, 레스토랑 등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arketm\_life blog www.marketm-life.com

Good things\* by TMC INTERNATIONAL INC. Copyright © 2014 All rights reserved.  
 굿띵즈에 수록된 글과 사진은 (주)티엠씨 인터내셔널이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사용시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Analog life

Alg\_Analog life는, 마켓엠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의류 브랜드입니다.  
 100% 오가닉 코튼을 이용하여 호주에서 생산한 아기옷부터 아동, 성인남녀 의류까지 심플하고 편안한 느낌의 제품을 선보입니다.  
 여유로운 호주의 라이프 스타일을 Alg 제품을 통해 경험해보세요.



# *You, me & the sea.*

짧은 봄이 지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드는 여름이 돌아왔다.  
눈부신 태양, 시원한 바다,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의 여행을 꿈꾸던 어느 날,  
푸르른 자연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호주, 바이런 베이로 떠났다.







Info.1

Time & Weather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위치한 바이런 베이는 우리나라 시간보다 한 시간 빠르며 (썬머타임 2시간) 여름 평균 기온 21~28℃, 겨울 평균 기온 15~21℃로 일년 중 대부분의 날들이 맑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된다.



AM 07:00

인천공항에서 10시간을 날아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차를 타고 아름다운 해변의 골드코스트를 지나 바이런 베이에 도착했다.



AM 09:00

하루 반나절 정도의 긴 여정 끝에 마주한 호주의 여유롭고 탁트인 풍경. 바이런 베이의 바다와 하늘, 따뜻한 햇살, 온 몸으로 느껴지는 자연 그대로의 색감에 그 동안 쌓인 피곤함은 가시고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 AM 10:00

맑고 깨끗한 푸른 빛의 바다가 넘실대는 바이런 베이의 해변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고 서핑을 즐기기에 좋은 파도와 해변은 Surfer's Paradise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서핑을 비롯한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기고 있었다.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시원한 파도에 몸을 맡겨 서핑을 즐겼다.

## Info.2

### How to surfing!

1. 보드에 엮드려 파도가 일어나는 곳으로 나아간다.
2. 적당한 파도를 만나게 되면 파도가 보드를 들어 올릴 때 무게 중심을 앞발에 모으고 일어선다.
3. 몸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해안 쪽으로 질주해 나간다.







**PM 12:30**

서핑을 즐긴 후에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점을 찾았다.  
해산물 요리가 발달되어 있으며, 고기요리와 열대과일, 유제품이 풍부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었다.

*Recommend.1*

**THE TOP SHOP**



바이런 베이 시내를 지나 주택밀집가를 따라 언덕쪽에 위치한 The Top Shop 카페는 수제 햄버거와 디저트, 음료 등을 맛볼 수 있다. 카페 앞 잔디에서 식사를 즐기는 풍경이 보기 좋다.

**Road house**



아지나무 사이에 둘러싸인 카페&바, Road house는 직접 키우는 허브와 유기농 농산물들로 맛을 낸 다양한 식사를 맛볼 수 있으며, 호주에서 가장 큰 위스키 컬렉션을 가지고 있어 위스키 바로도 유명하다.





**PM 01:30**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바이런 베이의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케이프 바이런으로 갔다.  
가장 동쪽에 위치해 호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파란 바다와 하얀 등대(Light house)가 어우러져 있었으며,  
우리에게는 음료 CF로 유명해 눈에 익은 풍경이었고 탁트인 바다가 인상적이었다.







## PM 03:00

깨끗하고 맑은 해변과 풍경을 즐기고 난 후에 시내로 나가 샵들을 구경했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편안하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지닌 샵들이 자리잡고 있어 바이런 베이의 라이프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 Recommend.2

### AHOY



Jai Vasicek의 작품 컬렉션과 더불어 그와 유사한 미학적 특징을 보이는 현지 디자이너들의 텍스타일을 이용한 쿠션, 러그 등 생활 소품과 패션 아이템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 Muther of all things



수영복 브랜드 Muther of all things는 바이런 베이에 위치하여 그 서핑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하였으며, 정교하고 위트있는 디자인의 수영복들과 다양한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 PM 05:00

어느 곳으로 여행을 하든 그 지역의 시장들을 둘러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류, 소품, 먹거리 등 다양한 물품으로 크게 열리는 방가로우 파크 마켓과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작지만 알찬 파머스 마켓을 둘러보았다.  
 각각 다른 날에 오픈하여 요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 Info.3

### Farmer's Market



농부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장터로  
 Byron bay 지역은 매주 목요일, Bangalow 지역은 토요일마다 열린다.

### Bangalow Park Market



Bangalow Park에서 매달 넷째주 일요일에 열리는  
 큰 시장으로 의류, 인테리어 소품, 식물, 먹거리 등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판매한다.





**PM 06:30**

시장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활기찬 분위기를 느끼고 캠핑장으로 향했다.  
 캠핑장은 강가, 바닷가 근처에 위치해 있어 훼손되지 않은 호주의 자연환경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다.  
 노을지는 바닷가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 했고  
 바이런 베이에서의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깨달았다.



**Info.4**

**Camping!**

캠핑카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수도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여러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취사장이 있다.  
 캠핑카가 없다면 텐트를 준비하거나  
 방갈로\_cabin을 예약하여 이용하면 된다.

호주 캠핑장 정보  
[www.big4.com.au](http://www.big4.com.au)  
 골드코스트 캠핑장 정보  
[www.goldcoasttouristparks.com.au](http://www.goldcoasttouristparks.com.au)







*Info.5*

바이런베이 여행정보

[visitbyronbay.com](http://visitbyronbay.com)

골드코스트 여행정보

[www.visitgoldcoast.com](http://www.visitgoldcoast.com)



# our corner store



호주 바이런 베이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편안한 느낌의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는  
 토탈 리빙샵 our corner store 브랜드 인터뷰입니다.

**This is an interview with a total living shop, called our corner store,  
 that seeks an easy and slow life in the nature at Byron Bay in Australia.**

[www.ourcornerstoreonline.com.au](http://www.ourcornerstoreonline.com.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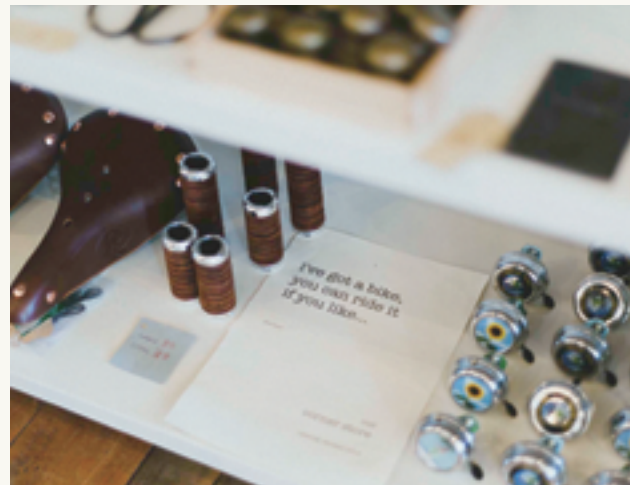
호주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바이런 베이와 Our corner store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바이런 베이(Byron Bay)는 호주의 동부 해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호주의 동쪽 끝에 위치  
 한 이곳에는 밤이 되면 야간의 선박을 안내하는 아름다운 등대 하나가 있습니다. 등대 주변을 돌아보  
 는 것은 현지인을 포함한 관광객에게 유명한 관광코스지요. 가끔씩 고래도 만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돌고래를 보는 것이 매우 흔한 일입니다. 바이런 베이(Byron Bay)는 해변과 열대지방의 자  
 연을 즐기는 예술가 등 다양한 사람들의 고향입니다. 또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바다도 유명하기 때문  
 에 방문하셔서 파도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Our corner store 매장은 바이런 베이(Byron Bay)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방갈로(Bangalow)라 불  
 리는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이름과 같이 우리 매장은 대로변의 모퉁이에 있습니다. 매  
 장의 오래된 목재 건물은 마을 최초의 집화점, 모퉁이 가게로 불리던 자리입니다. 이 곳은 매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매력적인 전통마을입니다.

**Could you please introduce Byron Bay which is a famous vacation spot in  
 AUS & Our corner store?**

Byron Bay is a very beautiful town on the east coast of Australia. It lies at the most  
 easterly point. We have a beautiful lighthouse which still shines to warn the boats  
 at night. The walk to the lighthouse is a very popular activity for tourists and locals,  
 sometimes you get to see whales and almost always will spot a beautiful dolphin.  
 Byron Bay is home to many alternative people, both artists and holistics enjoy the  
 beaches and its tropical surroundings. It is also very famous for its surfing beaches,  
 come and enjoy and learn how to catch a wave, lots of fun.

Our corner store is a lifestyle store situated in a small village called Bangalow, 10  
 mins drive from Byron Bay. Of course we are on a corner in the main street. We  
 are home to a beautiful very old timber building which once upon a time was the  
 towns first "general or corner store" It is a charming historical town that attracts alot  
 of people all year round.





한국의 디자인 제품들도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고객들은 호주에서는 구할 수 없는 새롭고 흥미로운 제품을 구경하는 것에 매우 흥미를 가지고 즐겨워합니다. 고객들과 함께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 디자인에 대한 애정 및 제품의 높은 품질에 관한 얘기를 나눕니다.

**You also carry many Korean designed products. How is the customers' response to those products?**

At Our Corner Store our customers are very happy and excited to see so many new and interesting products that are not available anywhere else in Australia. They share our love of Korean design and appreciate the quality. It is fun to watch the customers spend time investigating all the different products they can buy.

**호주 인테리어 및 리빙 디자인의 특징이 있다면?**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 때문에 호주 사람들의 삶은 야외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는 집 내부와 외부로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주로 영감을 받습니다. 호주의 디자인과 제품은 해외 디자이너로부터 매우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살고 있는 공간, 개인의 필요, 창조욕구의 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s there any peculiarity of Australian interior design products and living design?**

Life in Australia is centered around the outdoors because our climate is so mild and warm. We are inspired by people who create spaces within their homes that move with ease between the indoors and outdoors. Australian design and products are heavily influenced by overseas designers, therefore there is a real mix of styles depending on where you live, what are your needs and what you are wanting to create.



아이들을 통한 학부모로의 만남이 Our corner store의 시작이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나(Aneka Sidoti)와 Our corner store의 파트너인 미란다(Miranda Plummer)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들 루카와 미란나의 딸 애니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친한 소꿉친구로 지내왔습니다.

Our corner store 매장 바로 앞은 스쿨버스 정거장입니다. 발코니에는 작고 사랑스러운 정원이 있고요. 엄마들이 스쿨버스 정거장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동안 안에 모여서 수다 떨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희 매장은 모든 연령대의 고객이 좋아할 수 있는 제품을 들여오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도 좋아하며 자신에게 흥미로운 제품들을 찾아내곤 합니다. 방갈로(Bangalow)는 작은 마을이라 이 곳이 마을의 남녀노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I heard that the meeting with school parents through children has held in Our corner store. I want to listen more about that.**

Right out the front of Our corner store is the school bus stop. We have a lovely little garden area on our balcony. often the mums while they are waiting for the children to get off the bus will gather, chat and share

in our little store. We have products for all ages so the children love our store too and can always find something that interests them. Bangalow is a small town and our little shop sometimes seems to be the gathering place for locals young and old.

**Our corner store에서 주로 취급하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Our corner store에는 호주, 한국, 일본, 유럽의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취급합니다. 우리가 느꼈을 때 아름답고 실용적인 심플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원가 독특하고 특별하여 호주 내에서 볼 수 없는 제품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What are items that you mostly carry in Our corner store?**

Our corner store is a beautiful mix of Australian, Korean, Japanese and European products. We sell simple products that we feel are beautiful and useful. Not too fussy but are simply beautiful. We love trying to find products that are unique and different and maybe have never been seen before in Australia.



Miranda's House





지난 2011년 방문 후 꾸준히 마켓엠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마켓엠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은 제품은 어떤 것인가요?

고객들이 마켓엠 제품과 Wednesday71의 철사제품, M&B Furniture의 목재 제품을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 때문에 특히 좋아합니다. 마켓엠을 처음으로 호주에 소개했기 때문에 마켓엠이란 브랜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Since your visit in 2011, you are continuing a partnership with Market m\* and selling Market m\* products. Among those products, what is the best seller?**

People love the Market m and Wednesday 71 wire and wood ranges because it is simply a beautiful peice that is able to be used. somehow our store has something for everyone, a tribute to the store and how they once were, emporiums of everything, lots of bits and bobs.

**한국의 서울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많은 것들이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사람들의 정직함과 진실함, 뛰어난 스타일 감각 및 전통 건축문화와 인테리어 범위 내에서 표현해 내는 공간의 활용법,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나누는 편안한 대화방법 등 작은 골목길에 들어선 작은 음식점과 그 안에서 느끼는 친구들과의 나눔과 웃음 또한 한국을 사랑하게 합니다. 서울 중심부의 작은 레스토랑에선 신기하게도 숲 속 한가운데서 캠핑을 즐기고 있다는 기분까지 들게 합니다.

**What impressed you the most about Seoul?**

There are so many thing that have impressed us every time we come to Korea. The kindness and honesty of the people. The incredible

sense of style and use of space and scale within Korean architecture and interiors. The ease of conversing with each other even though there is a loanguage barrier. We love the little lane ways with tucked away amazing little placs to eat, shar and laugh with friends. How amazing that in the heart of Seoul you can find a little restaurant that feels like you are camping in the middle of the forest.

**앞으로의 Our corner store 모습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함께 조력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고객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심플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센스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새롭고 놀라운 제품들을 찾아 고객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장 주변에 항상 변화를 주어서 그 새로운 공간이 고객들의 집을 데코레이션 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주고자 합니다. 호주 내 총판 및 도매 업무를 진행하는 것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고 싶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Could you please tell us about the future Our corner stor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keep connecting with the people we do business with and the customers that support us. We want to keep current in fashion but maintain a sense that is simple but timeless. We love to find, source and present to our custmers new and amazing things We are always changing our shop around, creating different spaces and giving our customers ideas and inspiration for their homes. Wholesale is an avenue we wish to persue in the near future. Most importantly keep having fun.



인터뷰에 응해주신 Our corner store의 Miranda Plummer, Aneka Sidoti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We want to say thanks to Miranda Plummer and Aneka Sidoti.





※ 호주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frankie를 마켓엠에서 만나보세요.

NEW ARRIVAL!



**penco®**

Pen company라는 의미의 Penco는 미국문구를 연상시키는 캐주얼한 디자인의 1개의 노크식 볼펜에서 시작하여 필기용품, 노트, 오피스 소품에 이르기까지 사무실, 학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일본 HIGHTIDE사의 대표적인 문구브랜드입니다.

**HIGHTIDE**

HIGHTIDE는 문구 및 잡화의 기획과 도매, 판매 매장을 운영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문구 브랜드입니다. 디자인 회사와 함께 새로운 브랜드 개발을 하기도 하고 세계적인 그래픽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 브랜드도 선보이며, 유행에 따르지 않으면서 성인들을 사로잡는 기능성과 디자인이 뛰어난 다양한 문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Penco의 제품을 마켓엠에서 만나보세요!



## 시원한 한강 바이크 라이딩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요즘, 집에만 있다고 해서 더위를 피할 수 없다.  
해가 저물 때 쫘 시원한 강 바람을 맞으며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보는 건 어떨까?  
여름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는 강과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서서히 더위를 가라앉게 해 줄 것이다.





## 라이딩 전, 준비할 것들

시원하게 라이딩을 즐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다.  
 우선 안전한 상태인지 점검해 둔 자전거와 야간을 대비한 전조등과 후미등,  
 더운 날씨에 땀을 닦아 줄 수건과 한껏 달린 후에 마실 시원한 물,  
 내리쬐는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줄 선크림은 필수 준비물이다.  
 간단한 간식들을 챙겨간다면 중간에 잠시 쉬면서 즐겁게 라이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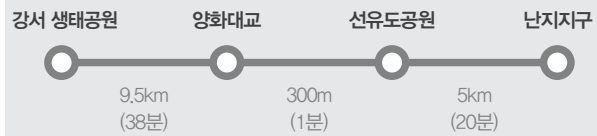




### 추천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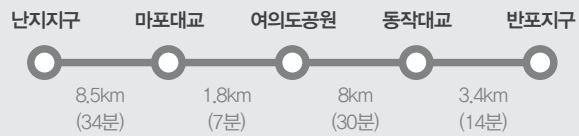
#### A 강서 생태공원 - 남지 한강공원 (약 14km 구간)

강서 생태공원에서 양화대교, 선유도공원, 남지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갈대숲과 노을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약 14~15km 정도로 한 시간 정도 소요된다. 양화대교 위에서 선유도로 나와 선유도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고, 낭만적인 풍경으로 연인들에게 추천하는 코스이다.



#### B 남지 한강공원 - 반포 한강공원 (약 16km 구간)

남지지구에서 출발하여 반포지구까지의 코스로 출발지에 따라 약 16~17km 거리로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 이 코스는 남지 공원의 이색 자전거길, 망원공원의 정다운 오솔길, 마포대교의 노을과 밤섬, 여의도 공원의 넓은 잔디 등 동작대교의 카페에 들러 쉬어갈 수 있어 좋은 코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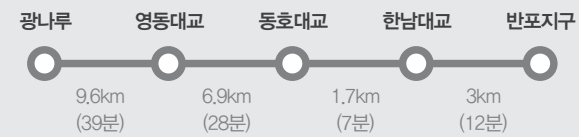
#### C 한강공원 상류 순환 코스 (약 15km 구간)

독성 한강공원에서 출발해 광나루 자전거공원, 암사 생태공원, 잠실대교, 독성으로 이어지는 한강공원 상류 순환 코스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지로 유명한 국내 유일의 교각 하부 전망대인 '리버뷰 8번가'를 볼 수 있으며, 광나루 자전거공원에는 다양하고 이색적인 자전거를 체험할 수 있다.



#### D 광나루 한강공원 - 반포 한강공원 (약 15km 구간)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반포 한강공원까지의 약 15km 구간으로 광진교와 광나루 자전거 공원에서 영동대교, 동호대교, 한남대교를 거쳐 반포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며, 영동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의 구간은 강바람을 맞으며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구간이다. 휴식이 필요하다면 한남대교의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다.



#### 자전거 코스와 정보를 찾는 데 유용한 사이트들

**네이버지도 (map.naver.com)**  
전국 대도시의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 자전거 테마지도를 제공하며 '주제별 지도'에서 자전거를 선택하면 볼 수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나 경용도로 등 도로에 관한 안내뿐만 아니라 진입로, 편의시설까지 위치가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어 편리하다.

**자전거 생활 (www.bicycliclife.net)**  
'월간 자전거 생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전국의 최신 자전거 코스와 더불어 자전거 여행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자전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소개되어 있다.

**GPS On (gpson.kr)**  
GPS를 가진 자전거 유저들이 각자의 루트 정보들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지도, 거리, 시간, 지형의 고도(높낮이)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오늘은 어딜 가볼까?'하고 출발 전 새로운 장소를 탐색하고 싶다면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코스를 참고해 보자.



## 여름의 맛

여름 디저트의 대명사라면 빙수와 아이스크림이 아닐까?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켜 줄 만한 디저트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식혀줄 여름 디저트들을 몇 가지 골라 보았다.



1. 천연과일로 만들어 아삭한 과일이 그대로 씹히는 맛이 일품인 브릭팝 아이스크림. 2. 단호박, 발사믹말기, 사천성후추 등의 독특한 재료를 이용한 수제아이스크림 펠앤콜 아이스크림. 3. 차갑게 얼린 홍시에 통통한 팥을 담고 달콤한 우유 단팥 소스로 맛을 낸 노그릇 가지런히의 옆집 홍시, 뒷집 단팥. 4. 팔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으며 곱게 갈아넣은 우유 얼음과 팥의 단맛, 찹쌀떡의 조화가 일품인 옥루몽 팥빙수. 5. 11가지의 다양한 토핑과 소스를 입맛에 맞게 주문할 수 있는 스위트 아이스크림. 6. '상하목장'의 우유를 사용하여 건강하게 달콤한 우유 맛이 부드러운 풀바셋 아이스크림.

## 함께하면 더 즐거운 음악

친구들과 락 스피릿으로 뭉쳐 긍정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연인과 함께 여름밤 공원산책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면,  
청량음료같이 경쾌하게 때로는 서정적인 로맨틱함으로  
더운 열기를 식혀줄 플레이리스트를 골라보았다.

- 글 이현아



Track. 01



Something Good Can Work  
Two Door Cinema Club

이미 국내에서 '쌍문동영화동호회'라는 애칭도 갖고있는 영국 인디록 밴드 Two Door Cinema Club의 데뷔앨범의 곡으로 톡톡튀는 멜로디에 절로 어깨가 한들리며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준다. 덩고 치치는 일상속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듬뿍받고 싶다면 이들의 흥겨운 음악을 함께 즐겨보자.

Track. 02



여름밤 탕  
슈기볼

꾸준히 달달한 음악들로 인기를 끌고있는 슈기볼이 마치 혼잣말하듯 이야기하는 이 곡은 매력적인 남자보컬과 설레이는 가사만으로도 마음을 두근두근거리게 만든다. 뜨거운 열기가 식은 여름밤, 그 공기가 마음을 동요시키는 것인지 밤이 주는 로맨틱함인지는 직접 발길을 걸어 감상하기를 바란다.

Track. 03



Full Time Job  
Manceau

발랄하고 상큼한 곡으로 가볍게 듣기 좋은 Manceau(망소)는 고등학생시절부터 함께 음악을 시작하여 데뷔앨범까지 발매하게 된 프랑스의 4인조 팝 밴드이다. Full Time Job은 '싱그러운 햇살같은 프렌치 팝'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청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힐링음악으로 즐길 수 있다.

Track. 04



바이킹  
페퍼톤스

뉴테라피 모던록밴드 페퍼톤스의 4집 수록곡으로 그들이 제주도로 작곡 여행을 떠났을때 숙소근처에 위치한 산방산랜드의 바이킹을 매일매일 타며 탄생했다는 비화가 있다. 신나는 놀이기구의 재미있고 짜릿한 분위기를 기대했지만 의외로 쓸쓸함이 전해져 오는 담담한 곡이 인상적이다.



## 열대야에 만나는 힐링타임

더위와 스트레스로 밤 늦도록 잠이 오지 않아 괴로운 당신,  
심장이 졸깃해지는 스릴러와 눈과 귀를 즐겁게 해 줄 다양한 영화들로 더위를 날려보자.

### SEUL ART CINEMA'S RECOMMEND!

#### Blow Out [필사의 추적] 브라이언 드 팔마, 1981

영화의 음향 효과를 녹음하는 테크니션인 잭은 저예산 영화의 사운드를 녹음하다 우연히 사고로 강물에 빠진 차를 발견하고 차 안에 있던 샐리를 구한다. 한편, 사고 당시 차 안에 함께 있던 남자는 당신이 거의 확실시되던 유명 정치인임이 밝혀지고, 잭은 녹음된 소리를 듣다가 차가 강물에 빠지기 직전 총 소리를 듣게된다. 현재까지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스릴러의 대가 브라이언 드 팔마의 대표작 중 정수로 꼽히는 영화로, 영화적 기법을 영리하게 사용해서 장르 영화의 차원을 한 단계 높였다. 심장이 졸깃해 질 정도로 흥미진진한 스릴러 영화이다. - 서울아트시네마 기획홍보팀장 석영화



7.24 - 8.24일까지 여름 한 달 동안 시대, 국적, 장르를 불문한 개성 강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서울아트시네마만의 영화축제인 "2014 시네바캉스 서울"에서 추천영화인 '필사의 추적'이 상영될 예정이다.

### MARKET-M RECOMMEND!

#### Somewhere [썸웨어] 소피아 코폴라, 2010



감각적인 영상미와 음악으로 주목받는 배우출신 감독 소피아 코폴라의 4번째 장편영화로, 영화배우로 화려한 삶을 살지만 고독하고 쓸쓸한 주인공에 대해 잔잔하게 이야기한다. 외롭고 불안한 그의 일상 속에 나타난 딸 클레오는 조금 더 다른 인생을 살게해 줄 '어딘가로 갈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 딸이 떠나고 그는 더 성장한듯 보였고, 마지막 장면에서 언제나 그와 함께했던 스포츠카를 뒤로 하며 짓는 환한 미소가 기억에 남는다.

#### Honokaa Boy [하와이언 레시피] 사나다 아츠시, 2009



호노카아 보이라는 원제로 더 알려져 있는 영화로 하와이의 평화롭고 조용한 호노카아 마을을 배경으로 '비' 할머니와 청년 '레오'의 우정을 그리고 있다. 아름다운 마을의 풍경과 롤케이크, 마라소다빵 등 맛있는 요리들로 눈이 즐거워지는 볼거리가 풍부하며, 마을사람들의 따뜻함을 통해 사람들과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마음의 위로 같은 영화다.

-마켓엠 디자인팀 이현아

CINEMATHEQUE  
SEOUL ART CINEMA  
PROGRAM

# JUNE > AUGUST 2014

## 망각에 저항하기

김동령, 박경태 감독 특별전  
6.14 Sat - 6.15 Sun

## Czech Film Festival

2014 체코 영화제 : 역사적 순간들  
Focus on "Czech Moments"  
6.17 Tue - 6.22 Sun

## Cinematheque Film Archive Special

필름 아카이브 특별전  
6.25 Wed - 6.29 Sun

## 한국영화 특별전

상반기, 우리가 주목한 작품들  
7.2 Wed - 7.6 Sun

## Kiju and Mariko

요시다 기주 + 오카다 마리코 특별전  
Yoshida Kiju and Okada Mariko Special  
7.8 Tue - 7.20 Sun

## 2014 Cine-Vacances Seoul

2014 시네바캉스서울  
7.24 Thu - 8.24 Sun

### 일본영화제작 정기 무료상영회

Japanese Film Series  
6월 추락하는 청춘 6/18(수) 14:00

### 6월 작가를 만나다

<거미의 땅> 6/14(토) 17:30



## 취향따라 채우는 컬처 캘린더

여름철엔 에어콘이 땀방한 실내가 최고라고들 하지만 누가 뭐라해도 여름은 축제의 계절이다.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여름을 즐기고 싶다면 락페스티벌이나 이색축제를 찾아가보자. 또한, 사색을 느끼고 싶다면 각종 공연과 전시 소식들이 함께하니 마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도 좋겠다.

### 🎵 락 페스티벌 : 모두 신나게 뒤흔 준비!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2014.08.01 - 03 송도 달빛축제공원  
현대카드 시티브레이크 2014 2014.08.09 - 10 서울월드컵경기장  
슈퍼소닉 2014 2014.08.14 - 15 올림픽공원

### 🎤 콘서트 : 좋아하는 가수와 함께 이 여름을

권순관 소극장 장기 콘서트 <긴 여행을 떠나요> part.2  
2014.07.03 - 07.13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심센치의 <잘 알지도 못하면서>  
2014.07.04 수원 경기도 문화의 전당 아늑한 소극장  
스윗소로우 소극장 콘서트 <희움>  
2014.07.03-07.20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사운드 페스티벌 2014 그녀의 삶을 살다  
2014.07.18 - 07.19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원 모어 찬스 앨범발매기념 콘서트  
2014.07.26 - 27 코엑스 오디토리움  
광산팻콘 7 - 요조, 손애플  
2014.08.23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어쿠스틱 알케미 내한공연 2014.08.23 유니클로 악스홀

### 🎪 지역 축제 : 축제도 즐기고 여행도 즐기자!

춘천 호수별빛축제 2014.05.29 - 08.17  
보령머드축제 2014.07.18 - 07.27  
포항국제불빛축제 2014.07.31 - 08.03  
목포해양문화축제 2014.08.01 - 08.05  
통영한산대첩축제 2014.08.13 - 08.17  
부산바다축제 2014.08.01 - 08.09

### 🖼️ 전시 :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트로이카: 소리, 빛, 시간 - 감성을 깨우는 놀라운 상상  
2014.04.10 - 2014.10.12 대림미술관  
오르세미술관전 인상주의, 그 빛을 넘어  
2014.05.03 - 2014.08.31 국립중앙박물관  
박흥용 만화: 펜 아래 운율, 길 위의 서사  
2014.05.30 - 08.03 아르코미술관  
SeMA BLUE 2014 <오작동 라이브러리>  
2014.06.03 - 08.03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VIP 1950-60: 빈티지 사진 2014.06.10 - 10.12 북서울미술관  
박노해 블리비아 사진전 <티티카카> 2014.07.25 - 11.19 라카펠갤러리  
에드바르트 뭉크전 2014.07.30 - 10.12 한가람미술관



# INCHEON PENTAPORT ROCK FESTIVAL 2014

AUG 1-3 @ 송도 달빛축제공원 PENTA PARK  
PENTAPORTROCK.COM

## 8.1 이승환 FRI

Crossfaith<sup>N</sup> / 데이브레이크 / DEMPAGUMI.inc<sup>N</sup>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 LIZZY BORDEN<sup>N</sup> / MAXIMO PARK<sup>N</sup>  
피해의식<sup>N</sup> / 피아 / SUICIDAL TENDENCIES  
써드스톤<sup>N</sup> / THORNAPPLE

## 8.2 KASABIAN SAT

BOYS LIKE GIRLS / CRASH / 디어클라우드  
IDIOTAPE<sup>N</sup> / 루디스텔로 / 넘버원코리안 / ORANGE RANGE  
페퍼톤스 / 장미여관<sup>N</sup> / THE HORRORS  
THE INSPECTOR CLUZO / 솔루션스

## 8.3 TRANS SUN

불독맨션<sup>N</sup> / Fourbrothers<sup>N</sup> / 해리빅버튼 / 장필순·조동희·오소영<sup>N</sup>  
킹스턴루디스카 / 로맨틱펀치 / RUX<sup>N</sup> / SCANDAL<sup>N</sup>  
STARSAILOR / 어반자카파 / 위아더나잇

AND MORE...



TICKET  
입장권문의 1544-1555  
ENGLISH BOOKING  
ticket.interpark.com/global

상기 라인업은 알파벳순입니다.





# mu 무대륙

예술과 인디문화를 사랑하는 아티스트들과 그 아티스트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즐겨 찾는 홍대 지역의 명소이며 카페와 함께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지는 복합 문화 공간인 무대륙을 소개한다.



---

Add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57-7  
Tel 02 332 8333  
Open 11:00 - 2:00am  
Homepage [www.mudaeruk.com](http://www.mudaeruk.com)

---





무대록 지하 공연장

주류창고였던 공간을 활용한 그런지한 느낌의 카페&팝 공간에서는 다양한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으며 지하 공연장에서는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독립출판물을 전시 판매하는 언리미티드 에디션을 비롯하여, 서울레코드 페어, 국내 첫 전자음악 페어였던 암페어 등 각종 문화행사와 전시가 열리고 있다.



피쉬 앤 칩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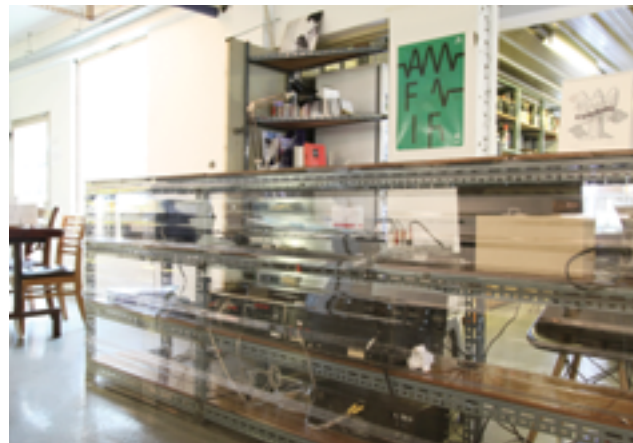


렌탈 스튜디오

작업실이 필요한 패션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에게 아뜰리에 공간을 렌트하고 있으며, 무대륙 옥상 공간을 활용하여 여성환경재단과 함께 옥상 텃밭을 조성하여 인근 지역의 도시 농부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음료와 음식만을 즐기는 공간이 아닌 즐길거리가 가득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이 곳에서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함께 해보자.



실외 공간



홍대 · 유렵 · 제주의 모퉁이에서 살다, 만나다, 생각하다

# 여행하는 람람라

황의정 지음

“  
시간은 훌륭한 마감재다.  
대단히 진귀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하루하루가 쌓이면  
언젠가 보석처럼 빛나기 마련이다.  
”

2014년 06월 9일 발행 | 황의정 지음 | 달 출판사  
150 x 210 mm | 352쪽 | 울컬러 | 양장 | 15,800원

여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평생 살고 있는 부부, 아니 가족이 있다. 건물을 짓고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남편 '이수영', 그에 어울리면서도 쓰임도 좋은 소품을 채워넣는 아내 '황의정'. 게다가 흔히들 맹인안내견으로 알고 있는 래브라도 리트리버종의 잘생긴 강아지도 한 마리 함께 산다. 그 아들 녀석의 이름은 '이두식'. 이 책은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 황의정이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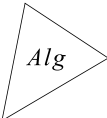
그들의 직업은 빈티지 컬렉터. 벌써 수년 전, 홍대 인근 어느 골목 모퉁이에서 '엣코너(at corner)'라는 빈티지숍을 열고 이런저런 진귀한 물건들을 팔았던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엣코너'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들 부부를 부르는 또다른 이름이 되어 하나의 고유명사로 자리잡았다.

이 책은 이들 부부의 인생을 통틀어 관통하고 있는 살아 숨쉬는 감성, 그동안 그들의 손을 거쳐갔던 물건들, 그리고 또 함께 인연을 나누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야말로 집대성이자 총망라된 결과물이다. 그들이 살아온 족적이 모자라지도 과장되지도 않게, 고스란히 들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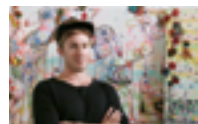
온라인 서점 Yes24,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만나보세요!



## Analog life 의 콜라보레이션 제품!



## Analog life by Market m\* & Australian Artists



마켓엠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의류브랜드 Alg와 호주의 아티스트 Jai Vasicek가 협업하여 제작한 프린트 티셔츠를 선보입니다.

Jai Vasicek은 문화와 모던 아트&디자인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호주의 아티스트로 여행으로 부터 얻은 영감을 표현한 벽화, 타일, 텍스타일 등 다양한 작품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으며, 밝고 강렬한 네온 컬러를 믹스하여 표현한 그의 패턴에서는 발랄하고 유니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래픽 작업물 중의 하나인 'You, me & the sea'는 데코타일, 패브릭 등의 제품들로 제작되어 Jai Vasicek가 운영하는 AHOY SHOP 등 호주 편집샵 등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Alg와 협업한 프린트 티셔츠는 시원한 느낌의 흰색과 파랑을 바탕으로 따뜻한 느낌의 영문구가 프린트되어 있으며 흰색, 파랑 두 컬러와 남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Analog life by Market m\* & GREENDESIGN WORKS **gongjang**<sup>TM</sup>



Alg와 친환경 문구 브랜드 공장\_gongjang이 협업하여 제작한 에코백을 선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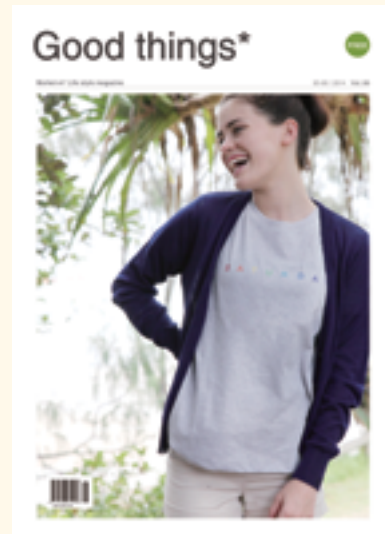
공방에서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의미와 물건을 만드는 장소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는 공장\_gongjang은 군더더기 없는 최소한의 디자인을 추구하고, 제품 생산의 전과정에서 환경을 먼저 생각하며, 디자인영역 안에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브랜드입니다.

재생지에 콩기름 잉크를 사용한 노트와 플래너 등의 문구류를 비롯하여 최소한의 공정으로 제작하는 카드케이스, 가방 등 다양한 생활소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자연을 닮은 질감과 색감, 동양적인 감성을 담아 편안함과 따뜻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Alg와 협업한 에코백은 가볍고 시원한 느낌의 광목 소재에 gongjang 디자이너의 식물 드로잉을 단면 실크 인쇄되어 내추럴한 분위기를 내며, 소지품 파우치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주머니에 패키징되어 있습니다.



# 1st Anniversary!



## Good things\* 배포처 및 광고 모집

Good things\*는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전국의 카페, 샵, 레스토랑 등지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포처 및 광고 신청은 [help@market-m.co.kr](mailto:help@market-m.co.kr)로 문의 바랍니다.

※ 2014년 여름부터는 더욱 알찬 내용의 기간지로 발행됩니다.



1% for the planet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웃도어 브랜드 기업인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본 추나드와 블루 리본 플라이즈의 대표 크레그 매튜스가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회원 기업들은 연간 매출의 1%를 환경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2,200개 이상의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을 비롯한 38개국에서 2,500개 이상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1% for the planet은 자연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기업들의 동맹입니다. 이에 참가하는 기업은 사업의 이익과 손실이 지구 환경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환경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지위를 확립해 나갑니다.

[www.onepercentfortheplanet.org](http://www.onepercentfortheplanet.org)

(주)티엠씨인터내셔널은 2011년부터 1% for the planet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Jieldé**

Hand made in France since 1950

[www.jielde-korea.com](http://www.jielde-korea.com)